

03

원명교체, 명칭교체와 한반도

■ 한명기

명지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문학박사

주요 논저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2009)
「광해군」(2000)
「임진왜란과 한중관계」(1999)

Contents

- 1 머리말
- 2 원명교체와 고려, 조선
- 3 명칭교체와 조선
- 4 맺음말

이 글은 14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원명교체와 명칭교체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한반도의 대응 양상을 살핀 것이다. 원의 극심한 간섭 때문에 고려의 자주성은 훼손되었지만 그것은 무신정권의 종말과 무신들에 의해 실추되었던 왕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세계제국 원의 성세와 개방성을 목도했던 고려의 지식인들은 원제국을 긍정하고 중화로 인정했다.

한편 원명교체가 진전되면서 고려는 만원 개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사대부들은 주자성리학을 수용하여 개혁의 이념으로 활용했다. 정도전 등 조선의 건국 주체들은 한족왕조 명의 등장을 긍정했지만, 명은 조선의 요동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경계하면서 조선을 길들이려고 시도했다.

세종대 이후 명에 지성으로 사대했고, 명 역시 조선의 충순을 인정하여 양국 관계에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송학 위주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명을 유일한 중화로 보는 한편, 일각에서는 조선 스스로 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중화'가 되기를 지향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명관계는 정상적인 '책봉 - 조공체제'에서 이탈했다. 명군의 참전을 계기로 명의 간섭이 심해졌고 조선의 자주성은 훼손되었다. 위기에 처한 조선 지배층은 명군의 참전을 '재조지은'으로 숭앙했고, 명은 왜란 이후 누르하치가 성장하자 조선을 이이제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요컨대 재조지은은 명칭교체가 조선의 외교적 행보를 제약했다. 요컨대 1636년의 참혹한 병자호란은 이미 임진왜란이 남긴 여파 속에서 배태되었던 것이다

1644년 명의 멸망을 계기로 조선은 '오랑캐' 청과 일본에 의해 포위된 형국이 되었다. 조선은 이미 망한 명을 추앙했지만, 현실에서는 청에게 순치되어 갔다. 일본에 대해서도 왜란에서 비롯된 원한을 접고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에서 조선이 '끌어안아야 할' 우방으로 인식되는 기미를 보였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쇄했던 왜관을 다시 복구해 주고, 통신사를 파견했던 것은 엄혹한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미봉책이었다.

요컨대 중일 사이에 끼여 있는 조선이 원명교체, 명칭교체에 겪었던 엄혹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약체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주제어

원명교체, 명칭교체, 주자성리학, 임진왜란, 병자호란, 약체성 극복

1. 머리말

대륙과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한반도는 중국에서 격변이나 동란이 발생할 때마다 그 여파에 곧바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분열되어 있던 중국 대륙에서 통일왕조가 출현할 경우, 통일왕조가 지닌 힘의 여파는 거의 예외 없이 한반도로 몰려오고는 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한반도 정세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후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기도 했다. 한제국(漢帝國)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했던 것, 당제국(唐帝國)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역사적으로 상대적 약자였던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분열되었던 대륙이 통일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기존의 통일왕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변화(=왕조교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또 새로 등장한 왕조가 한족(漢族)에 의해 성립된 것인지, 아니면 한족이 아닌 북방민족에 의해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의 크기와 성격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4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약 300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는 원명교체와 명청교체 등 두 번의 왕조교체가 이루어졌다. 전자는 북방 이민족에서 한족으로의 집권세력 변화였고, 후자는 다시 한족에서 이민족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는 변화였다. 주지하듯이 원명교체기에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변화를 겪었다. 명이 건국된 시점에서(1368) 불과 24년 뒤에 건국된 조선왕조는 수성(守成)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도정에서 원명교체로부터 비롯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나아가 조선왕조가 수성의 단계를 지나 이른바 중쇠기(中衰期)에 접어들었던 16세기 후반이 되면 중국 대륙의 정세는 다시 변하여 이른바 명청교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역년(歷年)이 유례없이 길었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 왕조의 당대에 '이적 → 중화', 그리고 다시 '중화 → 이적'이라는 대륙 정세의 격변을 맞이해야 했던 것은 참으로 버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원명교체, 명청교체가 한반도에 미친 파장과 그 과정에서 고려와 조선왕조가 보인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창업 시기에는 원명교체의 여파로부터, 수성 시기 이후에는 명청교체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의 경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명교체기에 한반도로 유입된 주자성리학을 수용했던 조선의 건국 세력과 후예들이—주자학의 교의를 이해하여 체득하면서—이후 명과의 관계를 풀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설정된 명과의 관계가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나아가 입관(入關)을 통한 청의 중원 장악을 거치면서 변용되어 가는 양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같은 작업은 '중국의 부상'이 모든 부문에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의 동아시아 정세가 지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미래의 모습을 조망하는데 약간이나마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원명교체와 고려, 조선

(1) 몽골의 침략과 고려 - 몽골 관계의 설정

건국 직후부터 송을 비롯하여 거란(遼), 여진(金) 등 이웃의 강대한 국가들과 공존해야 했던 고려는 나름대로 절묘한 외교술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다. 문화적으로는 송(宋)에 심복하여 그 문물을 수입하는 데 진력했지만 정치적 행보는 달랐다. 송과 요, 송과 금의 대립 속으로 말려들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당시 송은 고려를 이용하여 요와 금을 견제하려는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을 시도했지만, 고려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요와 금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¹⁾ 이처럼 고려가 다원적인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종 대 이후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윤관(尹瓘) 등을 시켜 구성(九城)을 쌓아 여진족들을 축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당시의 국제 관계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었던 지배층의 혜안도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²⁾

탄력적이고 다원적인 외교를 통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1) 안병우,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역사와 현실』 45(2002); 채웅석,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2006).

2) 송, 요, 금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고려의 외교술은 17세기 초 광해군에 의해 역사적 전범으로 강조된 바 있다(『光海君日記』 권166 광해군 13년 6월 丙子).

있었던 상황은 13세기 중반 몽골이 굴기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선 몽골의 군사력이 가공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탁월한 병구와 전법을 지닌 데다 무서워 도망치는 자들조차 주저 없이 살해해 버리는 잔인성을 지니고 있었다. 지력(地力)에만 의존해 사는 정주농민(定住農民)들에 대한 경멸의식에, 저항과 보복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였다.³⁾ 실제로 1234년 살리타(撒里台)가 주도한 몽골의 1차 침략 때 함신진(咸新鎭)을 포위한 몽골군이 항복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 도륙한다고 하자 성을 지키던 조숙창(趙叔昌) 등이 바로 항복했던 사례는⁴⁾ 이후 몽골과의 항전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고려사회 자체가 중기 이후 무신란을 거치면서 야기된 난맥상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저항 능력이 약화되었던 것도 몽골과의 항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씨 무신정권은 이후 30여 년 동안 전후 일곱 차례나 지속된 몽골의 침략과 맞서 싸웠다. 강화도로 천도했던 것은 그 의지의 표현이었다. 문신 귀족정권을 타도하고 등장했던 무신정권에게 몽골의 침략에 대한 방어 여부는 그들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시금석이었다. 몽골의 침략은 그들에게 흑심한 ‘시험의 시간’으로 다가왔고, 훗날 몽골과의 합의로 강화도로부터 출륙(出陸)이 결정되었을 때도 삼별초(三別抄)가 그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것은 무신의 존재 의의가 소멸된 것에 대한 ‘마지막 저항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침략과 저항 사이에서

3) 金浩東,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講座 中國史 III』(과주: 지식산업사, 1989), pp.258~263; 伊藤敏樹, 『モンゴルvs.西歐vs.イスラム: 13世紀の世界大戦』(講談社選書メチエ 298, 2004), p.8.

4)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p.429.

고려 민중들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⁵⁾

몽골의 침략이 무신 집정자들에게 ‘시험의 시간’이자 일반 민중들에게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무신들에게 짓눌려 왔던 고려의 국왕과 문신 세력들에게는—강화 이후 몽골의 후원을 배경으로—무신 세력의 전횡으로부터 탈출하여 고려 초반 ‘문종대’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외적인 계기로 작용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⁶⁾

그 같은 계기는 1259년 고종(高宗)의 세자 전(僖=元宗)의 입조를 통해 마련되었다. 그는 남송(南宋) 원정에 나섰던 몽골의 헌종(憲宗)을 배알하기 위해 감숙성 육반산(六盤山)이란 곳까지 들어갔다. 그는 거기서 헌종의 부음을 들었거나와 곧이어 쿠빌라이 소집을 위해 귀환하던 쿠빌라이와 양양(襄陽)에서 조우했다. 이듬해 쿠빌라이는 고려에 사자(使者)를 보내 화호의 국서를 전하여 고려와 몽골의 관계의 기본을 규정한 ‘세조 구제(世祖 舊制)’를 창출하게 된다. 비록 공물 부담은 가혹했지만 몽골군과 다루가치는 고려에서 철수했고, 고려는 국속(國俗)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⁷⁾ 그것은 고려의 국왕이나 문신들에게는 행운일 수 있었다. 이후 즉위한 원종은 적극적으로 친몽골 정책을 펼친다. 1264년(원종 5)에는 쿠빌라이가 아리크부가의 반란을 평정한 것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에—무신 실력자 김준(金俊)의 반대를 무릅쓰고—직접 참석했다. 고려 역사상 최초의 친조(親朝)였던 셈이다.⁸⁾

5) 『高麗史節要』, “先是 崔沆遣使諸島 盡驅居民 入島內 不從者 火其廬舍錢穀 餓死者 十八九”(高宗 43년 8월).

6) 金庠基, 앞의 책, p.15.

7) 김상기, 앞의 책, pp.463~464.

8) 김상기, 앞의 책, p.466.

원종이 보였던 이 같은 행보는 이후 고려의 왕정이 몽골을 빼놓고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실제 원종은 1268년 임연(林衍)을 사주하여 무신 실력자 김준을 제거했다가 임연에 의해 폐위되는 우여곡절을 겪지만, 원에 가 있던 세자 심(諡=충렬왕)의 활동을 통해 다시 복위된다. 나아가 충렬왕 이후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정동행성(征東行省)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원의 영향력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원의 간섭은 일상적으로 고려 사회 안팎에 미쳤고 고려국가의 자주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마국이라는 조건은 동시에 몽골 제국 내에서 고려의 위상을 다른 번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⁹⁾

충렬왕 이후 고려와 원의 관계가 안정되고 밀접해지면서 고려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우선 미천한 출신 배경을 가진 인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원과의 관계, 혹은 국왕의 근시로서 응방(鷹坊), 역관, 환관, 내료 등을 중심으로 많은 천계(賤系)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출세는 사대부들과의 갈등을 야기했고, 그 갈등은 역으로 고려에 대한 원의 입김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⁰⁾ 나아가 자의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해 많은 고려인들이 원으로 진출했다. 원으로 진출한 하층민들 가운데는 전쟁 과정에서 잡혀간 피로인이나 투항민, 국내 정정의 불안을 피해 원으로 흘러든 유민들이 있었다. 지배층 또한 투항, 숙위 등을 통해 원에 정착하거나 과거에 응시하는 부류도 있었다. 그밖에 공녀, 환관 등 원의 강압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거니와 그들 가운데는 출세하여

9) 廣集, 『道園類稿』 20, “送憲部張樂明還海東詩序”(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서울: 서울대출판부, 1997, p.40 재인용). “高麗於國家有甥舅之好 是以國王得建官 擬于天朝 他屬國莫之敢也”.

10) 이익주, “高麗 忠烈王代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9(1988); 金塘澤, “충렬왕의 왕권강화와 賤系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지위 향상”, 『元干涉期の高麗政治史』 所收(1998) 등.

원 황실과 밀착해 고려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도 있었다.¹¹⁾ 이 밖에 양국 문인들의 교류도 활발했거니와 원 간섭기 고려인들의 중국으로의 진출 빈도나 중국 문화 체험의 폭은 조선시대의 그것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넓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259년 쿠빌라이의 집권 이후 1264년 몽골은 국호를 대원으로 정했고, 1279년에는 마침내 남송을 정복했다. 남송 정복은 단순히 중원(中原)에 대한 통일의 의미를 넘어 원제국이 해상제국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은 강남이 보유하고 있던 한족들의 농업 경제력과 바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여 인도양을 건너 중동의 홀레구 울루스와 연결되었다. 그것은 동서의 내륙과 해양의 시스템이 연결되는 것이자 이른바 유라시아의 대교역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교역권의 구석구석으로는 은이 화폐로서 유통되었고, 육상과 해상 교통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막대한 부가 대도 연경(大都 燕京)으로 모여들었다.¹²⁾

쿠빌라이 이후의 원 제국은 중국 역대의 어느 왕조에 비해서도 복잡적이고 다양한 사회였다. 서아시아나 중동 출신의 무슬림들이 원 제국에 고용되어 행정과 징세 체계에 복무했고 그들은 원 사회의 다원성을 증대시켰다. 1290년대에 이르면 색목인(色目人)의 숫자가 몽골인과 거의 같은 1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었거니와 그 같은 상황에서 한족과 비한족 사이에 대규모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아가 복식, 식습관, 언어, 종교 등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다.¹³⁾

11)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서울:일조각, 1994), pp.151~234.

12) 杉山正明 저·이진복 역, 『유목민이 본 세계사』(서울: 학민사, 1999), pp.277~287; pp.304~329.

13) John D. Langlois, Jr., "CHINA UNDER MONGOL RULE"(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13~15.

쿠빌라이 집권 이후 나타났던 원의 성세는 원제국을 경험했던 고려의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승휴(李承休, 1224~1300)는 원을 일러 “영토의 광대함과 인민이 많은 것이 개벽 이래 건줄 데가 없다”고 찬양했고, 이곡(李穀, 1298~1351)은 “남아는 모름지기 제도(帝都)에서 베풀어야 한다”는 말로 대도에 머무는 아들 이색(李穡)을 격려했다.¹⁴⁾ 실제로 이색 등 이른바 구법파(舊法派) 사대부들은 원의 중국에 대한 지배와 성세를 종족적 관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세적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현(李齊賢)은 원이 남송을 멸망시킨 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여 긍정했다.¹⁵⁾ 나아가 그들은 원이 정치를 잘하여 인심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일하여 천하 만민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하고 궁극에는 ‘중화’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¹⁶⁾

요컨대 쿠빌라이에게 ‘세조 구제(世祖 舊制)’를 매개로 투항, 타협했던 이후 고려는 원의 번속국이자 부마국으로 전락하여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이전의 몽골과는 다른—쿠빌라이의 유화책과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대원의 성세를 목도한 뒤에는 대다수 고려 지식인들은 원의 지배를 긍정하고 그에 길들어 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편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관계의 수립과 유지를 통해, 다른 한편에서는 실로 빈번한 양국인 사이의 접촉을 통해 고려 사회는 다양한 면에서 원과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무신정권 단계까지만 해도 일본과 비슷한 역

14) 임형택, “고려 말 문인 지식층의 東人意識과 문명의식”(1996), 『실사구시의 한국학』 所收(과주: 창작과 비평사, 2000), pp.88~90.

15) 都賢喆,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 研究』(서울: 일조각, 1999), pp.102~115.

16)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7(2003), pp.103~109.

사적 경험을 밟고 있었던 고려에서 원의 지배를 전환기로 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적 관료지배기구가 출현했다는 지적은¹⁷⁾ 대단히 시사적이다.

(2) 명의 중원 장악과 여명, 조명관계

14세기 중반 이후 세계제국 원은 확실히 몰락의 추세를 보였다. 원의 멸망 원인으로는 제위 찬탈 등 정치적 난맥상과 교초(交鈔) 남발 등으로 인한 재정 문란이 우선 지적된다. 거기에 정착생활 이후 군사력이 약화되어 제국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고 색목인 등 소수에게 특권을 주고 다수인 한인(漢人)들에게 불만을 초래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⁸⁾ 실제 14세기 중반에는 한인 군웅들이 주도하는 농민 반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부세와 역 부담의 가중, 자연재해와 기근의 만연 속에서 늘어나고 있던 유민들이 반란에 가담했다. 원은 급기야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고려에 원군을 보내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고려는 1352년(공민왕 3) 병력 2000명을 원에 보내 장사성(張士誠)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데 참여한 바 있었다.¹⁹⁾

농민반란과 한족 출신 군웅들의 도전으로 원 제국이 위기에 처한 기회를 이용하여 고려는 반원, 친명정책을 폈다. 특히 공민왕은 부원세력을 일부 제거하고 쌍성총관부 이복 등 강탈당한 영역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²⁰⁾ 하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원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양성된 친원, 부원

17) 梶村秀樹, “朝鮮思想史における‘中國’との葛藤”, 『朝鮮史の構造と思想』(東京: 研文出版, 1982), pp. 18~20.

18) 稻葉岩吉, 『増訂滿洲發達史』(東京: 日本評論社, 1934), p. 113.

19) 김순자, “고려말 대중국 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 『역사와 현실』(1995), p. 107.

20) 閔賢九, “高麗 恭愍王代 反元的 改革政治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68(1989) 등 참조.

세력을 일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쨌든 원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14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는 격동했다. 중원에서는 주원장(張士誠)이 명을 건국하고 한반도에서는 조선이 개창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남북조의 동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동중국해에서는 권력의 공백을 틈타 왜구(倭寇)의 극심한 약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명의 건국은 이러한 동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지역질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명교체, 명의 중원 장악은 고려와 조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공민왕이 친명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은 고려에 대해 극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홍무제(洪武帝)는 작심하고 고려와 조선에 ‘길들이려’ 시도했다. 1369년(홍무 2, 공민왕 18) 명은 고려에 보낸 유시(諭示)에서 원이 축출된 이후 나타난 요심(洪武帝) 지역의 무질서와 왜구의 폐해를 거론한 뒤 국방에 힘쓸 것을 권유했다. 뿐만 아니라 고려가 불교에 빠져 있는 것, 사전이 갖춰지지 않은 것 등을 질책했다.²¹⁾ 또 고려가 명에 대한 외교 전례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범할 경우, 정벌을 운운하는 등 군사적 협박을 일삼았다.²²⁾

명은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 고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377년(홍무 10) 고려에서 공민왕의 시호를 요청하자, “시역(弒逆)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부했는가 하면, 1379년에 고려가 국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간첩 행위’라고 규정한 뒤, 고려를 노골적으로 ‘이적’, ‘금수’라고 매도하고 요동의 관원들에게 고려에 대한 군사적

21) 『明太祖實錄』 권46(홍무 2년 10월 壬戌).

22) 『明太祖實錄』 권89(홍무 7년 5월 壬申).

대비를 지시하기도 했다.²³⁾ 실제 1374년부터 1390년경까지 홍무제가 고려에 내린 유시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글자는 고려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사(詐)’자였다.

명이 이렇게 고려를 몰아 부친 배후에는 ‘요동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명은 고려와 북원이 연결되는 것을 막고 요동지역에 대한 고려의 영토적 야심을 차단하기 위해 고려를 견제하고 압박했다.²⁴⁾ 명의 압박이 이른바 친원과, 친명과 사이의 격렬한 대립을 낳고, 그 과정에서 요동공벌 시도와 위화도회군을 초래하고 끝내는 이성계(李成桂) 일파에 의한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²⁵⁾

주원장은 한반도의 역대 왕조에 대해 대단히 큰 불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대 이래 당·송·원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왕조들이 중국에 대해 복종과 배반을 무상하게 반복하면서 스스로 화를 불렀다며 비난한 바 있다.²⁶⁾ 주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조선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14세기 말부터 불거진 ‘생흔(生罅)’, ‘모만(侮慢)’ 문제와 ‘표전(表箋)’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주원장은 조선의 태도를 문제삼아 정도전(鄭道傳) 등 특정 신료를 붙잡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 같은 무리한 협박의 배후에는 조선이 요동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는 점, 그리고 그것이 조선의 반발을 사서 요동공벌 시도로까지 이어졌음은

23) 『明太祖實錄』 권124(홍무 12년 4월 庚申).

24) 김순자, 위의 논문(1995) 및 박원호,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사』 22(1995).

25) 박원호, 위의 논문(1995).

26) 朱元璋, 『明太祖集』 권7, 「命中書諭高麗」. “然朕觀高麗之于中國 自漢至今 其國君臣多不懷恩 但廣詐交而構禍 在昔漢時 高氏失爵 光武復其王號 旋即寇邊 大爲漢兵所敗 唐有天下 亦嘗賜封 隨復背叛 以致父子受俘 族姓遂絕 迨宋之興 王氏當國 逼于契丹女眞 甘爲奴虜 元世祖入中原 嘗救本國于垂亡 而乃妄懷疑貳 盜殺信使 屢降屢叛 是以數遭兵禍 今王顯被弑 奸臣竊命 將欲爲之首構 讐怨于我 納之何益”.

이미 밝혀져 있다.²⁷⁾

1393년 6월, 조선이 여진인들을 초유한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홍무제는 한당 시절의 조선 원정을 거론한 뒤—명의 군사력은 한당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다음과 같이 협박했다.

그대는 왕씨를 폐질시키고 스스로 그 나라를 취했다. 짐은 그대가 능히 동이(東夷)의 백성을 안정(安靖)시킬 것으로 여겨 그대 스스로 성교(聲敎)하도록 맡겨 두었다[……] 대대로 (중국이 조선을) 정벌한 까닭은 모두가 그(조선) 스스로가 혼단(黷端)을 만들어낸 것이지 중국은 애초부터 (남의) 토지를 병탄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너희가 믿는 것은 창해의 넓음과 중산(重山)의 험준함으로 되 (너희는) 우리의 군대가 한당시절과 같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한당의 군대는 말 달리고 활 쏘는 데는 능했지만 배를 짓는 데는 서툴러서 바다에서 용병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 짐은 군대를 일으켜 강남, 회남(表箋)을 복속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여 북쪽 오랑캐를 쫓아 버렸다. 말 달리고 활 쏘며 배를 부려 수륙이 모두 갖춰졌으니 그 어찌 한당에 비할 것인가?[……] 갑병이 백만이고, 전함이 천리에 뻗치니 발해의 물길과 요양의 육로로부터 들어간다면 구구한 조선이야 족히 아침 한끼 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이 무엇으로 당할 수 있단 말이냐.²⁸⁾

위의 협박 직후 명은 조선의 공도(貢道)를 폐쇄하고 요동, 복주, 해주,

27) 박원호, “明初 朝鮮의 遼東攻伐計劃과 表箋問題”; “15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明初朝鮮關係史研究』 所收(서울: 일조각, 2002).

28) 『明太祖實錄』 권228(홍무 26년 6월 壬辰).

개주 등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²⁹⁾

태조 연간 명의 협박은 창업기의 조선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유시문의 앞 부분에서 ‘왕씨폐절’, ‘자취기국(自取其國)’을 운운한 부분은 특히 그러했다. 이후 명은 이성계가 ‘명에 대한 사대의 도리를 망각하고’, ‘거듭 혼극(黷隙)을 야기하는’ 원인으로서 경박한 소인배를 등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그 소인으로 정도전을 지목했다.³⁰⁾ 이것은 당시 명이 조선의 정정에 대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명이 정도전을 ‘문제의 인물’로 구체적으로 거명한 그해(1398)에 이방원(태종) 일파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민족 몽골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다시 동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한 명은 신생 조선에 대해 자신들의 위의를 과시하고 확실한 ‘복종’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원장이 이성계를 ‘이인임(李仁任)의 아들’이라 했던 것이 『조훈(祖訓)』에 기록되고 이후 이른바 종계변무(宗系辨誣)의 발단이 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영락 연간 이후 만력 연간에 이르기까지 전후 180여 년 동안 모두 11차례의 변무 주문을 올렸다. 명은 만력 연간 『대명회전』을 중수하면서 조선이 올렸던 변무문을 축약해서 삽입했을 뿐, 신간본에도 『조훈』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³¹⁾ 아마도 명은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종계(宗系) 문제를 계속 조선과의 사이에 ‘현안’으로 유지하면서 변무를 위해 ‘전전궁

29) 『明太祖實錄』 권229(홍무 26년 7월 辛亥).

30) 『明太祖實錄』 권249(홍무 30년 1월 丙辰), 권257(홍무 31년 4월 庚辰); 박원호, 앞의 책(2002) p.315.

31) 稻葉岩吉, “明と朝鮮との初期の關係”,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所收(1933), p.6.

궁'하는 조선의 저자세를 즐기려 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³²⁾

명의 압력 때문에 조선이 요동 정벌을 시도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방원의 즉위를 거쳐 세종대에 이르면서 조선과 명의 관계는 확실한 안정을 찾았다. 그것은 우선 세종이 명에 대해 지니고 있던 사대론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세종은 사대의 예를 '국제적 인신론(人臣論)'으로 인식하여 '신하의 예를 지키듯 정성을 다하여 명을 섬겨야 한다'는 이른바 지성사대론(至誠事大論)을 강조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양반 관료들에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유교적 예론의 연장선에 있었다.³³⁾

명에 대해 인신의 예를 다해 지극히 사대해야 한다는 세종의 생각은 실록의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명의 영락제의 부음을 들었던 1424년 9월, 제후로서 입어야 하는 상복을 27일간이나 입었다. 당시 신료들이 "천하 신민들은 3일 만에 복을 벗어라"고 했다는 흉무제의 유조를 들어 반대했음에도, '군신의 의리'를 내세워 끝내 27일간 상복을 입었던 것이다.³⁴⁾ 『세종실록』의 사평에는 '임금이 중국을 공경하고 섬겨서 공물로 바치는 모든 방물(方物)들을 친히 검사하지 않음이 없었고, (중국과의) 일은 털끝만큼도 잘못함이 없이 법도를 따랐으므로 중국도 그 지성스러움을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⁵⁾

세종이 철저한 인신사대론을 통해 명과의 관계를 안정시켰던 것은

32) 이것은 명이 훗날 『兩朝從信錄』 등에서 仁祖反正을 '篡奪'이라고 기록했던 사실과 유사하다. 조선은 이 문제를 辨誣하기 위해 顯宗부터 英祖代까지 청을 상대로 지난한 교섭을 계속한 바 있다(한명기,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청 '순치' 과정",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9, 2009 참조).

33) 安貞姬, 「朝鮮初期의 事大論」, 『歷史教育』 64(1997), pp.22-31.

34) 『世宗實錄』 권25(세종 6년 9월 甲戌).

35) 『世宗實錄』 권125(세종 32년 9월).

양국 사이에서 ‘현안’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썩 자체를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것은 세종이 내정(內政)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치적을 남기고 그를 통해 조선 전기의 성세(盛世)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도 생각된다. 하지만 ‘우월하다’ 싶을 정도로 명에 대해 공순한 태도를 취했던 세종의 태도는 이후 명사(明使)들이 조선에 와서 자행했던 극심한 폐단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즉 조선 사회에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를 남겼던 세종대의 윤봉(尹鳳)이나 성종대의 정동(鄭同) 등의 사례가³⁶⁾ 그 대표적인 실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세종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는—여진족과 관련된 소소한 문제나 종계변무 문제 이외에는—양국 관계를 뒤흔들 만한 현안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세종대는 원명교체 이후 밀려오던 명의 물리적 외압이 종식되고, 조선 역시 명의 ‘특별한 변방’으로 인정받게 되는 분수령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력 연간 명의 엄종간(嚴從簡)이, ‘조선의 빈복(賓服)’을 이끌어낸 홍무제의 ‘포량(包量)’과 세종 이후 조선의 ‘공근(恭謹)’을 찬양하는 글을 남긴 것은³⁷⁾ 이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의미심장하다.

36) 조영록,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 『國史館論叢』 14(1990); 한명기, 「세종시대 대명관계와 사절의 왕래」, 『세종문화사대계 3』(2001).

37) (明) 嚴從簡, 『殊域周咨錄』 권1, 「朝鮮」, “按隋煬帝以征高麗而亡國 唐太宗以伐高麗而致侮 凡以好大喜功 不恤民命之爲累耳 我聖祖之於李旦 忍其詐侮 或擯絕之 或切責之 諄諄然以口舌代戈矛 豈其力有不足哉 [……] 不惟示包荒之量 實寓好生之仁 卒致內寧外威 而朝鮮賓服 迄今晏然 爲我四輔 不可以觀聖祖宏遠之略也哉 [……] (永樂)十七年 芳遠老 請以子禱嗣 時國家遷都北京 比南京距朝鮮爲益近 以後仁宗昭皇帝洪熙間 宣宗章皇帝宣德間 每歲凡萬壽聖節正旦皇太子千秋節 皆遣使奉表朝賀 貢方物 其他謝恩等使率無常期 或前者未還而後者已至 雖國王不世見 然事天朝最恭謹 天朝亦厚禮之 異于他蕃 每朝廷大事 必遣頒詔于其國”.

3. 명칭교체와 조선

(1) 16세기의 조선과 명

원명교체기에 유입된 성리학은 이후 조선왕조의 체제 이념이 되었다. 특히 정도전 등 왕조 개창의 주역들은 종족, 명분,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화이관을 바탕으로 원명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즉 그들은 한족의 명을 명실상부한 정통이자 천자국으로 인식하여 조선의 명에 대한 事大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⁸⁾

그럼에도 15세기까지만 해도 종족을 중심에 놓고 중화와 이적을 엄격히 구분하는 화이론이 조선의 지식계를 풍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적국가'인 원과 빈번하게 교류했던 고려 말의 여풍이 남아 있었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³⁹⁾ 태종 연간, 원에 출사하여 원대 주자학계를 이끌었던 한인 허형(許衡)을 문묘에 종사시켰던 것은⁴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명과의 사대관계를 용인하면서도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조선을 '중국의 부속물이 아닌 자기 완결적인 별세계(別世界)'로 보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었다.⁴¹⁾

다른 한편에서는 몽골, 서하, 여진, 일본 등 주변의 제민족들을 이적으

38) 도현철, 앞의 책(1999), pp.195~201.

39) 명의 건국자 주원장도 원을 이적이라고 일방적으로 부정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胡風 일소(虜地)'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종족을 기준으로 한 화이관을 가지지 않았으며 쿠빌라이의 治世를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용인했다고 한다(檀上寬, "初期明帝國體制論", 『岩波講座世界歴史 11』, 1997, pp.308~310).

40) 『太宗實錄』 권25(태종 13년 2월 丁巳). 한편 1657년(효종 8) 宋時烈은, 허형이 오랑캐 원에게 몸을 망친 사람이라 하여 문묘에서 출향시킬 것을 촉구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孝宗實錄』 권19(효종 8년 8월 丙戌)).

41) 山内弘一, 「李朝初期に於ける對明自尊の意識」, 『朝鮮學報』 92(1979), pp.56~57.

로 비하하면서 ‘기자(箕子)의 교화를 입은 조선’은 문물과 예악 등 모든 것을 중화의 예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극단적인 모화론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훈민정음 창제를 일러 ‘스스로 이적으로 전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던 최만리(崔萬理)의 경우가⁴²⁾ 대표적이었다.

『성리대전』이 수입되었던 세종대와 문물제도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었던 성종대를 거쳐 16세기가 되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성리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관련 저술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⁴³⁾ 그리고 그 이해는 주로 송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거니와 화이론 역시 그 바탕에서 중화와 이적을 엄밀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아가 노장이나 양명학을 배격하고 주자학을 오로지 하는 것을 통해 조선의 학문이 중국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다.⁴⁴⁾ 16세기 후반 사람들이 정계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송학에 침잠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훈구파 계열의 임기(林芑)라는 인물이, 송학에 경도되었던 사람들을 가리켜 ‘『근사록』과 『심경』에만 빠져 이름을 낚는 미끼로 삼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비난하자 사람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 임기를 국문하라고 성토했던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⁴⁵⁾

16세기의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선 지식인들은 종족적 화이관에 입각하여 친명, 모화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16세기 초반, 『천자문』을

42) 『世宗實錄』 권103(세종 26년 2월 庚子).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 我朝自祖宗以來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豈不有愧於事大慕華 一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曰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 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自同求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而螻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異哉”.

43) 김향수,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이해”, 『韓國史論』 7(1981).

44) 김향수, 위의 논문(1981), p.172.

45) 『宣祖實錄』 권10(선조 9년 7월 辛亥·壬子·癸丑·甲子).

갓 뎨 학동들의 수신서이자 역사서로서 기술된 『동몽선습』은 한족 중심의 화이관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늘이 오랑캐 元의 더러운 德을 혐오하여 大明을 떠오르게 했고, 그 명나라가 천만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다.⁴⁶⁾ 17세기 이후 『동몽선습』이 사대부가의 자제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명(=한족) 중심의 종족적 화이관은 유년 시절부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⁴⁷⁾

이렇게 명을 천하의 대국이자 ‘문명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아래서 조선은 명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은 1534년 ‘조선은 기자의 가르침과 중하의 풍속을 계승한 예의지국’이자 ‘다른 번국은 바랄 수도 없는 명의 정통 제후국’이라는 자부심을 피력한 바 있다.⁴⁸⁾ 이 같은 자부심을 지녔던 16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때로 자신이 목도했던 명의 현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경우, 가차 없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예로 1574년(선조 7) 북경에 사행했던 허봉(許篈)과 조헌(趙憲)은 당시 명에서 양명학이 유행하고 왕수인이 문묘에 종사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 그것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은 명을 ‘천자의 나라’로 존송하면서도 주자학이 아닌 이단의 학풍이 ‘중화의 본고장’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6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미 중화 그 이상의 ‘중화인’으로 등

46) 朴世茂, 『童蒙先習』, 「總論」. “胡元滅宋 混一區宇 綿歷百年 夷狄之盛 未有若此者也 天厭穢德 大明中天 聖繼神承 於千萬年”.

47) 한명기, “병자호란 직후 대청인식의 변화 조짐”,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所收(서울: 푸른역사, 2009), pp.365~368.

48) 金安國, “送禮曹尹參議朝京師序”, 『慕齋先生集』 권11. “洪惟我皇明混一寰宇 統御萬邦 文軌攸同 聲教咸暨 太陽照耀之德 無不被於普率 而震隅一區 光輝偏厚 世荷列聖之眷 優禮之典 錫賚之蕃 有非他藩國之所得望 其一視無外之恩 實與內諸侯比者 何也 豈不以其守箕子之遺化 秉道義治禮教 修文獻篤彝倫 謹侯度導正統 一遵中夏之風 亘久遠而無變”.

장했던 것이다.⁴⁹⁾

조선 지식인들이 지녔던 ‘중화인 이상의 중화인’이자 ‘명의 정통 제후국’이라는 자부심은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16세기 말엽, 황정욱(黃廷彧, 1532~1607)은 일본을 가리켜 ‘중국의 교화 바깥에 위치한 한갓 군더더기에 불과하므로 중국의 제후가 될 수 없다’며 ‘중화의 예의와 문물을 전해주는 조선이 없다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것도 보고 들을 수 없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규정한 바 있다.⁵⁰⁾ ‘중화국(中華國) 명(明)의 충순한 제후’라는 사실이야말로 ‘오랑캐’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의 근본적인 기반이었던 셈이다.

(2) 임진왜란과 명, 조선

15세기 후반 이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했던 대항해시대의 여파는 컸다. 후추(胡椒) 등 향료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동아시아 해역까지 진입한 서양인들은 중국과 일본에 천주교와 새로운 무기를 전파했다. 1517년 무렵, 중국에 불랑기포(佛狼機砲)가 전해졌고 이후 그것은 명의 공창에서 제작되어 몽골과의 전투에서 사용되었다. 이어 1543년 일본에는 조총이 전래되었다. 서양 상인들은 또한 남미와 일본에서 생산된 은을 매개로 중국의 생사와 비단을 구매하여 활발한 중개무역을 벌였다. 중국으로 유입된 대량의 은이 유통되던 동중국해 주변과 변방의 구변(九邊)지역은 거대

49) 夫馬進, “萬曆二年朝鮮使節의 ‘中華國 批判’”, 『山根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東京: 汲古書院, 1990), pp. 565~568.

50) 黃廷彧, “檄日本國關白書”, 『芝川集』 권3. “乾坤定位 上下判矣 萬國區分 內外別矣 貴國邈在海中 天地間一疣贅之域 自三代以來 未嘗紀土貢而采國俗 絕不許齒錄於侯服 幸而弊邦與之爲隣 禮義文物 倖擬中華 貴國舍弊邦 則一步無可往之地 耳無所聞 目無所見 不過井底蛙耳”.

한 은의 집결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국제상업의 이익을 둘러싼 다양한 무력집단의 혼전이 벌어졌다. 왜구의 계보를 잇는 모험 상인,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상업세력, 이성량(李成梁)과 누르하치 등 북방의 군벌 등이 이 호황 지대에서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와중에 명청교체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⁵¹⁾

조총의 전래 이후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를 중심으로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게 되면서 통일의 기운이 높아졌다. 이 와중에 158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주군 오다의 뒤를 이어 새로운 패자(覇者)로 부상했다. 1583년에는 건주여진 출신의 누르하치(奴兒哈赤)가 주변 여진족 집단에 대한 조무에 나서면서 동아시아의 동쪽과 북쪽에서 새로운 군사적 강자들이 명과 조선을 위협하게 되었다.⁵²⁾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은 조선, 명, 후금(淸)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일찍이 1930년대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가 “히데요시가 일으킨 조선역(朝鮮役)이 만주를 흥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던⁵³⁾ 이래 임진왜란의 발생은 명청교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⁵⁴⁾

51) 岸本美緒, 『東アジアの近世』(東京: 山川出版社, 2006).

52) 閻崇年, 『清朝通史』(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

53) 稻葉岩吉, “秀吉の朝鮮役は滿洲を興起せしむ”, 『新東亞建設と史觀』(東京: 千倉書房, 1939), pp. 72~77.

54) 이나바의 주장은 ‘가도입명’을 표방한 ‘히데요시의 침략→명군의 조선 참전→명의 건주여진에 대한 감시 소홀→누르하치의 굴기→명청교체’라는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창조 건국의 최고 공로자는 히데요시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나바는 또한 관동군이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宣統帝)를 복벽시켜 만주국을 세운 것을 히데요시가 ‘결과적으로’ 누르하치를 도운 것에 비견시켜 역사적으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명에게 財政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명은 어차피 내부 모순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岡野昌子,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 『中山八郎頌壽記念明清史論叢』, 東京 燎原, 1977) 이

그런데 조선과 명의 관계와 관련하여 임진왜란이 갖는 중요성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임진왜란은 조선과 명의 관계를 전제 이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명은 임진왜란을 맞아 “조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참전했지만 그들의 참전은—히데요시가 ‘가도입명(假道入明)’을 표방한 이상—어디까지나 요동, 천진 등 ‘북경의 인후부(咽喉部)’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였다.⁵⁵⁾

1593년 1월,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명군이 평양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명의 참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벽제전투’에서 참패하면서 명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종전을 쉽게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비는 급증했고, 전비 조달을 위해 강남 등지에서의 증세가 시행되면서 명 내부의 반발은 날로 커졌다. 결국 미봉책으로 강화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봉공(封貢) 문제를 놓고 명정의 당쟁은 심화되었다.⁵⁶⁾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은 단순한 외번(外藩)이 아니라—명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키고 절제해야만 하는—명의 또 다른 ‘노지(虜地)’이자 ‘구변’으로 인식되었다.⁵⁷⁾

강화협상과 관련된 ‘조선 문제’가 명정에서의 당쟁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명군 지휘부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은 심해졌다. 그들은 조선

나바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환기시키고 있다.

55) 명은 조선이 ‘명의 참전이 조선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自衛를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조선은 그저 ‘명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宣祖實錄』 권34(선조 26년 1월 辛酉)).

56) 小野和子, “明·日和平交渉をめぐる政争”, 『山根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1990), pp.575~578.

57) 鄭琢, “經略侍郎宋應昌一本”, 『龍蛇雜錄』. “且今日倭犯止朝鮮 朝鮮郡縣非我土地也[……] 且自弘治正德年間 已被倭奴盤踞慶尙 居與婚媾 盡爲倭戶 已非一日 該國志書見在可查 非臣今日詐讒也 臣與李如松劉黃裳及將士人等 嘗謂釜山等處 猶我中國之虜地也 全羅慶尙 猶我國中之九邊”.

을 ‘쇠망의 기미가 누적된 나라[積衰之邦]로 여겼거니와 그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조선은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명을 수고롭게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조선을 ‘자강’시켜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조 등 조선의 집권층을 절제하고, 명이 조선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조선이 반발하자 왕위교체론, 직할통치론 등이 거론되었다. 나아가 그 바탕에는 ‘변변치 못한 오랑캐 조선이 답답하다’고 평가절하하는⁵⁸⁾ 명의 본심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조공국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공-책봉관계’의 관행이 무너지려는 순간, 조선은 과거 몽골 치하 고려에 설치되었던 정동행성과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떠올리며 전을했다.⁵⁹⁾

명은 조선에 참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지만 조선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밀지는 장사’가 아니었다. 명은 우선 장기간의 주둔을 통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명군이 극심한 민폐를 자행했음에도 선조와 조선 지식인들은 명의 참전을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再造之恩)’으로 숭앙했다. 이미 ‘중화인’으로 자임하고 있던 지식인들은 명군의 참전을 자신들의 명에 대한 사대와 추향을 정당화시키는 ‘결정적인 은공’으로 인식했다. 일부 지식인들은 임진왜란을 아예 ‘재조’라고 부르기도 했다.⁶⁰⁾ 선조는 ‘재조지은’을 숭앙하고 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전란 기간 동안 위기에 처한 자신의 왕권을 다시

58) 『宣祖實錄』 권37(선조 26년 4월 戊子). “尹根壽以宋經略寄王通判書 進啓 其辭曰 朝鮮君臣 固執不聽 可嘆可嘆 [……] 夷裔之難解也 如此也”.

5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57~67.

60) 高尚顔, “效嘯雜記”, 『泰村集』 권4, “再造之後 士大夫崇信術士 雖久遠祖墳 更擇吉地 遷葬安厝……”.

세우려고 했다. 명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참전을 ‘재조 지은’으로 자평하는가 하면⁶¹⁾ 임진왜란을 ‘동원일역(東援一役=조선을 도운 전쟁)’이라 불렀다.⁶²⁾

이처럼 왜란 시기 조선이 취했던 자발적인 저자세에⁶³⁾ 명의 ‘시혜자’로서의 생색이 맞물리면서 명의 조선에 대한 의제적 장악력은 대폭 커졌고, 그것은 명청교체의 추세가 훨씬 두드러지고 있던 17세기 초반, 조선이 명과 후금(淸)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극히 제약하게 되었다.

(3) 후금의 본격적인 굴기와 조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조선은 여진을 그저—조선에 충성을 바치고 경제적으로도 얹혀사는—변변치 못한 ‘추류(醜類)’로 인식하고 있었다.⁶⁴⁾ 그런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은 그들의 실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당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조선에 원병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왜란이 끝나고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건주여진의 명에 대한 도전은 본격화되었다. 1618년 이른바 칠대환(七大恨)을 내걸고 무순(撫順)을 점령한 것이 그 분수령이었다.

일찍이 임진왜란을 일선에서 겪었던 광해군은 ‘전쟁을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즉위 직전인 1607년, 누르하치가 이른바 ‘문암(門巖)전투’

61) 『明神宗實錄』 권317(萬曆 25년 12월 辛酉).

62) 『光海君日記』 권25(광해군 2년 2월 庚戌).

63) 정유제란 시기가 되면 조선은 義禁府를 金吾衛로, 藝文館을 翰林院으로, 司憲府는 都察院으로 개명하여 명나라 관제를 의식하기도 했다(『宣祖實錄』 권89[선조 30년 6월 丁卯]).

64) 한명기, 「병자호란 직후 대청인식의 변화 조짐」(2009), 앞의 책(2009), pp.365~375.

를 통해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흘은(忽溫) 계통의 여진을 병합한 뒤부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즉위 이후 광해군의 누르하치에 대한 정책은 분명했다. 그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웬만한 요구는 들어주면서 기미(羈縻)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방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⁶⁵⁾

하지만 문제는 ‘재조지은’이었다. 이미 ‘중화가 베푼 은혜’를 입은 상황에서 조선이 아무리 후금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명과 후금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한 조선은 명과 후금의 대결 구도 속으로 말려들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명은 1618년 이후 조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이이제이 정책이었다. 안으로 광세(礦稅)·상세지폐(商稅之弊) 때문에 민변이 만연하고, 당쟁이 심화되던 와중에 ‘중화’의 위용을 실제로 뒷받침할만한 군사적 역량은 잠식되고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명은—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했지만⁶⁶⁾—‘고분고분한 오랑캐 [順夷]인 조선을 끌어들이어 후금을 공략하고자 했다. 명분은 물론 ‘재조지은에 대한 보답’이었다.⁶⁷⁾ 그것은 1619년 명이 누르하치를 공격하려 할 때 조선군을 동원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심하전역, 사르후전투).

광해군과 그의 측근들은 그 같은 명의 기도에 반발했다. 하지만 조정 안팎의 분위기는 시뭇 달랐다. 조정의 대다수 신료는 물론 변방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무장들조차 광해군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리로 말

65) 한명기, 앞의 책(1999), pp.229~244.

66) (明) 于燕芳, 『巢奴議撮』 11, 『清入關前史料選集』 所收(1989, 人民大學出版社), p.131. “惟是守在四夷 夷一切等耳 豈在昔征不曾爲外夷攻外夷有餘 在今我征虜爲中國 救中國屬國不足 我之恥也”.

67) 『明神宗實錄』 권569(萬曆 46년 윤 4월 乙亥). “戶科給事中官應震奏御奴三策 [……] 朝鮮當倭變時 亦受我救援厚恩 宜借北關兵馬向道 搗奴右掖 調朝鮮鳥銃手二三千 同我兵由鴨綠山後搗奴左掖 此以順夷攻奴之大略也”.

하면 ‘군신’이고, 은혜로 말하면 ‘부자’ 관계인 명에게 ‘힘이 약하다’는 것은 구실이 될 수 없고 설사 나라가 망하더라도 의리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명의 신임을 잃는 것이 후금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고 여기고 있었다.⁶⁸⁾ 이처럼 명이 강요하고, 조선 조야가 채근하는 분위기에서 광해군은 결국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심하전역’이 조명연합군의 참패로 끝난 뒤 광해군의 발언권은 확대되었다. 그는 명의 재정병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후금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면서 조선의 동병이 ‘부득이한 것’임을 주지시키려 노력했다.⁶⁹⁾ 하지만 그의 양단을 걸친 태도는 조야로부터 ‘재조지은을 배신한 패륜’으로 매도되었고—내정에서의 난맥상과 맞물려—인조반정(仁祖反正)을 통해 폐위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재조지은’은 이제—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조선 내부에서 정권을 바꿀 정도로 커다란 위력을 지니게 되었다.

(4) 정묘·병자호란과 조선

1621년 요동(遼東) 전체가 후금에게 점령되면서 명과 조선 사이의 육로는 단절되었다. 육로의 단절은 과거 요양에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존재하던 시절, 무시로 사절을 파견하여 조선을 견제할 수 있었던 명의 ‘대조선 장악

68) 張晚, “副體察使往關西時陳戒箴”, 『洛西集』 권2, “我國之於天朝 以義則有君臣之分 以恩則有父子之情 以此以彼 難可以力弱辭 唯當悉賦 而從以國而斃 以明大義於天下 而計未出此 [……] 臣愚以爲 失中朝將士之心 慘於虜騎之南牧”.

69) 그 같은 외교적 노력에는 물질적 손실이 수반되었다. 광해군은 조선에 온 명使들에게 수만냥의 銀을 뇌물로 주었고, 후금 측에도 각종 물자를 증여했다.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갔다가 수만냥의 銀을 뇌물로 받은 뒤 귀국하여 7만냥의 은을 추징당했던 監軍御使 楊之垣의 사례가 대표적이다(『光海君日記』 권176, [광해군 14년 4월 壬午]).

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을 의미했다. 더욱이 1619년 '심하전역' 패전 이후 명의 재징병 요구를 회피하는 등 명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광해군의 존재를 고려하면 명은—조선이 후금 쪽으로 기울지도 모른다—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21년과 1623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후금 치하의 진강(鎭江)을 잠시 점령했다가 조선으로 진입한 것과 인조반정이 그것이었다. 양자는 모두 요동 실패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던 명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과 장악력을 일거에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⁷⁰⁾

모문룡은 철산 앞바다의 가도(假島)로 들어가 동강진(東江鎭)을 설치했거니와 그것은 요동 점령 후 서진(西進)에 매진하려던 후금을 견제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나아가 명은 모문룡의 동강진을, '후금을 견제하는 거점'인 조선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중심으로 삼아 '등래(登萊)→동강진→조선→후금'이라는 구도를 지닌 방어망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⁷¹⁾

명은 인조반정을 '찬탈'이라고 규정했다.⁷²⁾ 특히 동림당계(東林黨系)의 신료들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반정 주도세력을 응징하고 광해군을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명 조정의 분위기는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광해군을 축출했던 인조와 서인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인조반정의 정당성에 대한 추인과 인조에 대한 책봉을 받아냄으로써

70) 한명기, 앞의 책(1999), pp.348~352; pp.37~377.

71) 『明史稿』, 「朝鮮傳」, 『東江遺事』所收(臺北 鼎文書局, 1979). “兵部言 牽制敵國者 朝鮮也 聯屬朝鮮者 毛鎭也 駕馭毛鎭者 登撫也 今撫臣與鎭臣不和 以致鎭臣與屬國不和 此敵之利而中國之不利……”.

72) 『明熹宗實錄』 권33(天啓 3년 4월 戊子); 沈國元, 『兩朝從信錄』 권18. “朝鮮國王李珣爲姪李侗所篡……”.

집권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했던 반정세력은 명에게 매달렸다. 명은 조선으로부터 후금과 적극적으로 대결하고 모문룡에 대한 접체에 성의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인조를 책봉했다. 인조반정의 발생은 요동 상실 이후 위기에 처했던 조선에 대한 명의 ‘종주권’을 확실히 부활시키고 그를 통해 조선을 다시 후금과의 군사적 대결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요컨대 인조반정은 명청교체기 조선 내부의 정세 변화가 역으로 대륙에서의 명과 후금(청)의 대결 구도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⁷³⁾

이제 ‘찬탈’을 묵인하면서 인조를 책봉해 준 ‘명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조선이 모문룡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후금의 위기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모문룡의 흡인력에 이끌려 요동 지역의 한인들(=遼民)이 대거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후금은 격분했다. 바로 그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후금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했다. 1627년의 정묘호란이 바로 그것이었다.

정묘호란이 야기한 위기는 조선이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고 세폐를 약속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이후 조선의 경제적 부담은 격증했다. 조선은 후금에게 해마다 1만 5000필의 면포를 비롯하여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는 경제적 생명선이 되었다. 모문룡은 ‘조선이 후금과 화친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탈을 자행했다.

명과 후금의 대결이 본격화될수록 조선이 지닌 전략적 가치는 높아져 갔다. 특히 조선의 수군과 화기수에 대한 양국의 관심은 지대했다. 후금은 163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공연히 조선에게 수군과 전함을 제공해 달라고

73) 한명기, 앞의 책(1999), pp.338-352.

요구했다. 1626년 원숭환(袁崇煥)에게 영원(寧遠)에서 패했던 이후 산해관(山海關)이라는 철옹성에 막혀 있던 후금은 발해만을 활용하여 명 공격을 위한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수군과 전함 확보가 절실했다. 조선 수군이 후금에게 넘어갈 경우 천진, 등래 등지가 위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명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으려 시도했다. 후금에게 수군과 전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선에 압력을 가했다. 이제 후금에 수군과 전함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명에 대한 조선의 충성도를 기늠하는 기준이 되었다.⁷⁴⁾

조선은 후금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후금은 결국 수군과 전함을 확보했다. 1633년 공유덕(孔有德), 경중명(耿仲明) 등 이신(貳臣)들의 귀순을 통해서였다. 공유덕 등은 수군과 전함 이외에 홍이포(紅夷砲)까지 넘겨주었거니와 후금의 전력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⁷⁵⁾ 자연스럽게 명과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요구도 따라서 커졌다. 조선에서 후금과의 형제관계를 단절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들끓는 와중에 1636년 후금은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선언하여 그에 기름을 부었다.⁷⁶⁾

칭제건원은 후금이 더 이상 만주 변방의 소국이 아니라 만몽한(滿蒙漢)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변신하겠다는 지향을 드러낸 것이고, 조선의 척화는 그것을 정면에서 거부한 도전이었다. 양자가 충돌했던 귀결이 바로 병자호란이었다.

74) 한명기, 앞의 책(2009), pp.127~135.

75) 이 사건은 조선에도 엄청난 재앙이 되었다. 1637년 병자호란에 참전했던 孔有德은 수군 선단을 이끌고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江華島를 함락시켰고, 그것은 결국 남한산성에 있던 조선 조정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말았다(한명기, 「병자호란 시기 이신과 조정관계」, 앞의 책(2009) 8장 참조).

76) 한명기, 앞의 책(2009), pp.140~152.

병자호란 시기 조선에서는 주화, 척화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청을 극단적으로 이적시(夷狄視)하는 화이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휘(尹暉)가 말했다 [……] 신이 생각건대 아주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오랑캐의 성품은 심히 탐욕스러운데 피난하는 사람들의 화물을 절대로 침탈하지 않고, 또 그 향오(行伍)도 아주 정제되어 있습니다. 전마는 멀리서 왔음에도 조금도 피곤해 보이지 않으니 매우 괴이쩍습니다. 그들의 하는 바를 볼 때 흉특함이 이와 같으니 아마도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⁷⁷⁾

1636년 12월 25일 조선 조정이 남한산성에 머물고 있을 때 윤휘가 인조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당시 그는 남한산성과 청 진영을 왕래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왕래 도중 목도했던 청군의 상황을 위와 같이 언급했던 것이다. “오랑캐는 탐욕스럽다”는 선입견을 토대로 청군이 조선 피난민의 화물을 약탈하지 않고, 대오도 정비되어 있는 것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결국 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밀려 항복하고 신복을 약속했다. 인조의 아들들이 질자가 된 것을 비롯하여 50만 가까운 포로들이 심양으로 끌려가야 했다. 청을 이적시하는 준열한 화이론만으로는 청의 위력을 극

77) 『南漢日記』(인조 14년 12월 25일). “尹暉曰[……] 以臣度之 竊有可疑者 胡性甚貪 而避亂人之貨物者 絕不侵奪 且其行伍 甚爲整齊 戰馬遠來 而少不疲困 甚可怪也 觀其所爲 兇慝如此 恐有別情也”.

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북방민족 특유의 탁월한 정보(情報) 수집 능력을 지녔던⁷⁸⁾ 청에 맞서야 했던 조선이, 명의 ‘눈치를 보면서’ 청에 대한 정탐조차 기피했던 것은⁷⁹⁾ ‘비극’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었다.

청은 병자호란을 통해 조선을 제압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청은 먼저 본격적인 정명전(征明戰)에 나서는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염려를 없앨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수군과 화기수들을 동원 하여 전력을 증강시키게 되었다. 실제 청은 병자호란 직후 조선의 수군과 화기수들을 징발하여 가도와 명의 내지를 공략하는 데 이용했다.⁸⁰⁾ 마지막 으로 자신들에게 끝까지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았던 조선의 기를 꺾음으로써 청이 만몽한을 아울러 ‘제국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⁸¹⁾

1644년 입관(入關) 이전까지 청은 인조와 소현세자에게 자신들에 대한 ‘충성 경쟁’을 유도했다. 인조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왕위 교체론’을 흘리며 압박했다. 인조는 “독사에 물리면 지체 없이 팔뚝을 자를 수밖에 없다”며 청의 압박에 순치되어 갔다. 그는 병자호란의 항복을 계기로 청에 기대면서 신하들에 의해 ‘추대된 임금’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왕권의 한계를 벗어 던지려 했다. 어쩌면 병자호란의 패전과 항복은 역설적이게도 인조가 반정공신들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78) 『建州私志』中(潘詰等編, 『清入關前史料選輯一』, 人民大學出版社, 1989), p.273. “自開原既克 我兵膽落 建人最工間諜 所在內應 故堅城立下……”.

79) 金埴, “到蝦島問答狀”, 『潛谷先生遺稿』 권6. “都督曰 近日虜中往來之人乎 臣答曰 弊邦與虜相絕 豈有往來之人乎 都督曰 雖已相絕 時或送人 探視情形 似或可矣”.

80) 『承政院日記』 제59책(인조 15년 7월 4일). “李聖求曰[……] 彼以我國砲手 極爲精銳 渠等多被 殺傷 蝦島功 亦賴其力 方抄被擄人一千六百名習砲云矣”.

81) 한명기, 앞의 책(2009), pp.228-234.

화이론에 입각한 명분을 중시했던 신료와 사대부들은 호란의 치욕적인 경험을 통해 심각한 ‘명분의 전도’ 현상에 직면했다. 그러다 보니 전란 중 자신의 행적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를 명분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1637년 1월 21일, 이미 대세가 기울어 투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무렵 청군 진영에 보내는 국서를 놓고 벌어진 ‘해프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최명길(崔鳴吉)과 이식(李植)이 국서를 제진(製進)했거니와, 두 사람이 지은 것은 모두 청에게 ‘아부하고 굴종하는’ 내용을 담아 대동소이었다. 하지만 이식은 자신이 지은 국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명길을 공박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명분으로 삼았다.⁸²⁾ 호란 중의 언동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명분 다툼은 인조대 이후 정파 사이에서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거니와 삼전도비(三田渡碑)의 찬수를 둘러싼 논란은⁸³⁾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후 조선 지식인들은 병자호란 때문에 야기된 ‘명분의 전도’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북벌론,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 등을 제시했다. 1644년 명 멸망 이후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출사를 거부하고 은거하면서 스스로 ‘대명거사(大明居士)’, ‘송정처사(大明居士)’를 자임했다. 나아가 명에 대한 영원한 송양의 근거인 ‘재조지은’에 대한 보은을 강조하기 위해 대보단(大報壇)과 만동묘(萬東廟)도 만들었다. 하지만 청 역시 조선 지식인들이 화이론과 ‘재조지은’에 얽매어 명을 절대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좌시

82) 羅萬甲, “急報以後日錄”, 『丙子錄』(丁丑, 1월 21일). “此又崔鳴吉所製也 上使崔鳴吉及大提學李植 俱製答虜書 雖用鳴吉之文 諂屈請降之意 少無異同 而植只以其文不用 故每攻鳴吉 自以爲高人皆不服”.

83) 李銀順, “老少論의 時局認識論”, 『朝鮮後期黨爭史研究』 所收(서울: 일조각, 1989), pp.158-182.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이 곧 천하”라고 여기는 조선 지식인들의 생각을 부정하여 명을 조선에게 상대적인 존재로 격하시키려는 작업이었다.⁸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태도, 조선의 일본에 대한 자세 또한 달라졌다. 임진왜란 이후의 일본은 조선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로 치부되었지만, 조선이 서북방에서 청에게 시달리게 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명과 청 사이의 대결에 치여 곤경에 처하자 일본의 기세는 높아졌고, 그와 맞물려 조선의 대일 태도 또한 유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무엇보다 조선이 처한 곤경을 이용하여 무역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려 했다. 나아가 정묘호란 이후 조선에 ‘무기 원조론’ 등을 흘리면서 대륙 정세를 정탐하고, 명으로 가는 공로(貢路)를 개척하려고 시도했다.⁸⁵⁾ 위기에 처한 조선은 1629년—임진왜란 이후 엄격하게 금지했던 관행을 잠시 접고—왜사 견보(女方) 일행의 상경을 허용했는가 하면, 일본에서 병력을 빌리는 방안을 구상하기도 했다. 또 일부 신료들 중에는, 청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선린 관계를 맺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외제청론(以倭制清論)’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했다.⁸⁶⁾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왜관을 유지하고 통신사를 파견하는 등 현상유지 내지 유화적인 방향의 대일정책이 지속되었다.

84) 『清太宗實錄』 권33(崇德 2년 1월 丁巳), “勅諭朝鮮國王李倭曰[……] 又云 壬辰之難 旦夕且亡 明國神宗皇帝動天下之兵 拯救生民于水火之中 夫天下大矣 天下之國多矣 救爾難者 止明朝一國 耳 天下諸國言兵 豈盡至耶 明與爾國誕妄過大爲言 何以終不已耶”.

85) 紙屋敦之, 『大君外交と東アジア』(東京: 吉川弘文館, 1997).

86) 한명기, 「병자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정책과 인식」, 앞의 책(2009), pp.321~326; pp.352~357.

4. 맺음말

14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일어난 대륙에서의 원명교체와 명칭교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 변화에 근원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원의 지배 아래서 고려의 자주성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고려는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했고, 그들에 의해 영토 일부를 강탈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의 지배는 그동안 고려를 지배했던 무신정권의 종말을 불렀고, 무신들에게 밀려 실추되었던 왕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고려의 왕정은 원에 기대어 유지되었고, 원과 고려 왕실의 밀착 과정에서 신분이 상승하는 부류가 나타나고 상층, 하층을 막론하고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원의 현실을 직접 목도했던 고려의 지식인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다종다양한 종족을 포용했던 원을 긍정했다. 나아가 그들은 형세론에 입각하여 원을 중화로 인정하고 고려의 복속을 당연시하기도 했다.

14세기 중반 원명교체의 흐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공민왕은 반원적인 개혁정치를 단행했다.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성장한 사대부들은 주자성리학을 수용하여 명분을 밝히고 사회의 모순을 제거하는 개혁의 이념으로 활용하려 했다. 정도전 등은 종족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주자학의 명분론을 바탕으로 한족왕조 명의 등장을 긍정했다.

하지만 조선 건국 직후 명의 조선에 대한 태도는 극히 고압적이고 적대적이었다. 물론 (고려)조선과 북원의 결탁과 요동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경계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명은 더 나아가 조선에게 자신의 위의를 과시하고, 확실히 순치시키려는 의도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계변무를 둘러싼 우여곡절은 그를 잘 보여준다.

조선은 명을 종주국으로 받아들이며 사대관계를 맺었다. 그 과정에서 세종의 인신사대론은 명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내치에 몰두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명 역시 공순한 조선을 다른 번국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별하게 대우했고, 이후 조선과 명 관계에는 거의 더 이상의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5세기까지만 명에 대한 사대는, 한족왕조이기 때문에 당연시 되는 극단적인 종족적 화이론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송학 위주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명을 유일한 중화로 보고, 나머지는 이적으로 여기는 관념이 굳어져 갔다. 16세기 이후 주자학만을 정통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 가운데는 중화인 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중화'가 되기를 지향하는 흐름까지 나타났다.

임진왜란의 발생은 조선과 명의 관계가 정상적인 '책봉 - 조공 체제'의 내용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군의 조선 참전은 일본의 침략을 조선에서 저지함으로써 명 본토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에 대한 명의 간섭이 심해졌고 조선의 자주성은 훼손되었다. 하지만 위기에 처했던 조선 지배층은 명의 참전을 '재조지은'으로 숭양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명의 지배력은 제고되었다.

17세기 초반 누르하치의 여진 세력이 명에 도전하자 명은 조선을 끌어 들여 여진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른바 명청교체를 맞아 명은 조선을 이이 제이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명분론을 중시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은 여진을 이적이자 금수로 여겼고, 그 같은 배경에서—명과 여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던—광해군은 인조반정을 통해 폐위되었다.

요컨대 재조지은은 명청교체기 조선의 외교적 행보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었던 것이다.

1636년 병자호란, 1644년 명의 멸망을 계기로 조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일변(一變)했다. 조선은 이제 이적국 청과 일본에 의해 포위된 형국이 되었다. 망해버린 중화국(中華國) 명에 대한 존경심은 그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청에게 점점 순치되어 가고 있었다. 나아가 또 다른 이적국 일본에 대해서도 임진왜란에서 비롯된 과거의 원한을 접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어 있는 조선이 청과 일본 모두를 적대하면서도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은 조선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에서 조선이 ‘끌어안아야 할’ 우방으로 인식되는 기미를 보였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쇄했던 왜관을 다시 복구해 주고, 통신사를 파견했던 것은 엄혹한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미봉책이었던 셈이다.⁸⁷⁾

논문 접수일 2003.12.30.

심사 완료일 2010.01.30.

87) 조선 후기 일본인들이 거류했던 왜관은 ‘외교와 교역의 공간’, ‘문화 교류와 접촉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무엇보다 왜관이 지닌 ‘비대칭성’에 주목한다. 즉, 왜관은 조선 영토 안에만 일방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항상 1000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머물렀던 왜관은 필연적으로 조선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치유신 이후에는 ‘정한론’에 입각한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 요컨대 필자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조선, 조선 사람들을 너무도 잘 알게 된 원인을 왜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진왜란을 통해 대일 적개심이 하늘을 찔렀던 상황에서도 왜관이라는 비대칭적 존재를 다시 개설해 주어야만 했던 조선의 울분,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상대적인 약체성을 극복하는 것이 명청교체기 이래 조선의 역사적 과제였음을 제대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The Dynastic Change i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_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the Political Change from Yüan to Ming and from Ming to Qing

Han, Myung-Gi

Department of History, Myongji University

During the three hundred years which covers from the late 14th to mid-17th century, the mainland China saw the dynastic changes from Yüan to Ming and again Ming to Qing. The latter was the another transformation from the Han to the foreign tribe in terms of political initiative while the former was the change from the northern 'barbarian' to the Han tribe. As is well known, during the first change, Korean peninsula saw the fall of Koryŏ and the rise of the Chosŏn dynasty. The Chosŏn dynasty which was founded only after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in 1368, was not able to be free when the elite tried to secure the foundation and establish its system. Moreover, in the late 16th century when the Chosŏn dynasty was passing the mid-point where it secured its system, there happened new indications of the dynastic change in the mainland China. Though the Chosŏn dynasty had a long span with its own reasons, it was not easy for it to deal with the two political turmoils in the mainland China.

The Chosŏn intellectuals indoctrinated themselves with the Neo-Confucianism during the Yüan and Ming political change, and they were eager to be a "civilized," or Chu-hsia people. That kind of eagerness was elevated while Chosŏn was experiencing the Hideyoshi invasion. In conclusion, the Neo-Confucian mind-set which was formed during the Yüan and Ming dynastic change was persistent in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the Chosŏn intellectuals.

Considering the various sufferings originated in the changes from Yüan to Ming and again Ming to Qing, it is indispensable for Korean peninsula to make strenuous efforts to be true balancer between China and Japan.

- Keywords

dynastic changes from Yüan to Ming, dynastic changes from Ming to Qing, Korean peninsula, Han and 'barbarian', true balancer between China and Japan